

2019년 8월 22일, 서귀포시 동홍동 올림픽인쇄사, 오창순 조사.

강태전(남, 1942년생, 서귀포시 동홍동)

- 서귀포시 법환동 출생으로 천지동에서 20여 년 살았고, 현재까지 동홍동에서 거주하고 있다.

- 줄거리: 정의에 근무하는 관리가 여우물 앞을 지날 때 여자가 말을 태워 달라니까 여우라고 직감했다. 그 여자를 말에 태워 두루마기 끈으로 묶어 집까지 가서 풀어놓았는데 개와 싸워서 개가 이기자 그 이후부터 여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조사자] 여우물?

[제보자] 여우물. 게니까 여우물은 지금 서귀포여고하고 삼매봉 사이에 있는 큰길. 거기가 옛날 지명으로 여우물이라고 하는데. 여우가 난다고 해서 여우물이라. 여우물. 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천팔백 년대나 천칠백 년대인지 모르겠지마는 정의에 근무하는 요즘 같으면 관리, 관리가 이제 법환리 분인데 항상 말 타고 그디 갔다가 오고 이제 여기 출근하고 퇴근하고 오는데.

하루는 이제 비가 으슬으슬 오고 아주 우눅지고 기분이 좀 무섭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거길 지나가게 되었는데 어떤 예쁜 여자가 앞길을 가니까 자기 어디 가느냐, 태워 달라고 어디 간다고 태워 달라고 하니까 말 위에 타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말 달릴 거니까 딱 묶으라 해가지고 자기 옷 두루마기 끈으로 뒤를 여자를 딱 묶었어요. 경 안 해도 된 덴 해도 묶었어요.

벌써 관리는 이 여자가 여우란 걸 직감해가지고 죽여야겠다 해서 말 타고 천천히 가라고 해도 계속 달려서 법환리까지 가서 자기 집안에 오니까 거기 아주 큰 개를 키우고 있었는데 탁 풀어놓으니까 여자가 바로 여우로 변해가지고 개가 싸웠는데 끝내는 개가 이겨서 그 다음부터는 여우물에 여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전설.

• 핵심어: 여우물, 여우, 말, 관리, 두루마기, 여인, 개, 법환리